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모성역할을 통한 이상적 자아의  
선묘드로잉 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상희

모성역할을 통한 이상적 자아의  
선묘드로잉 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 양 화 과

김 상 희

# 인 준 서

김상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4년 2월 ‘안전한 곳’展 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 및 조형적인 측면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 더불어 돌보며 살아야 한다. “돌봄이란 세계 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페트리시아 베너(Patricia Benner)가 언급했듯이, 인류가 생존하고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도와주고 싶어 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본능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모성적 포용력은 평화를 지향하는 공존의 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고 모성성이 갖는 돌봄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다.

본인은 한 인간으로써 25년 동안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한 여성으로써 7년 동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보살핌이 지닌 긍정의 역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은 모성(母性)의 시각과 행동으로 현 시대에 맞는 충분한 육아의 심리를 조형적인 언어로 표출하게 되었다.

인간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인 만큼 간과하기 쉬운 본능적 모성에의 주제처럼, 인류가 예술의 표현으로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종지와 천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며 분석한다.

작품 전개과정에서 본인은 펜촉과 잉크 또는 붓 펜을 주된 재료로 사용한다. 돌봄을 받는 아이와 돌봄을 주는 어머니인 본인의 관계에서 시작한 연구 주제를 고찰하고, 재료의 특성을 탐구하면서 아이의 사랑을 품은 모성의 몸체와 아이를 향한 보살핌이 어떻게 시각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탐구하는 어린이를 포착하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크로키형식과 선묘드로잉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어머니인 본인의 시각으로 아이에게 주는 돌봄과 보호를 형상화하기 위해 넝쿨식물과 동양화적 여백이라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집안에서 아이를 위해 쓰였던 이불과 옷가지의 천을 활용하여 과거 어린이였던 본인을 회상하며 순수한 자아의 본질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 역시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를 갖았던 자아를 성찰할 수 있었고, 아이에게 어떠한 위험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강한 모성애라는 보호막을 울타리로서 표현해내는데 주력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을 집요하게 고찰하여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진행되어질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목 차

논문 개요

작품 목 차

참고도판 목 차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	3
1) 모성역할을 통한 내면 관찰 .....	3
2) 엄마와 아이, 그리고 세상 .....	6
3) 이상적 자아 찾기-어린이 상 .....	8
2. 작품의 조형적 표현 .....	13
1) 선묘드로잉 .....	13
2) 드로잉을 위한 재료 .....	17
3) 모성애의 이상향 .....	21
(1) 자연의 보살핌 .....	21
(2) 단순함을 넘은 여백 .....	23
(3) 모성의 연출 .....	25
3. 작품 분석 .....	28
III. 결론 .....	54

참고 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쏟아진 물 컵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 [작품2] 쏟아지고 있는 물 컵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 [작품3] 아이와 자연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 [작품4] 물속의 아이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 [작품5] 울타리 속 아이들 nip and ink on paper 53×45.5cm 2013
- [작품6] 어린이의 사유(思惟) nip and ink on paper 42×59.4cm 2013
- [작품7] 모성애 nip and ink on paper 29×42cm 2013
- [작품8] 모녀(母女)들 nip and ink on paper 42×29cm 2013
- [작품9] 울타리 속 남매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 [작품10] 엄마를 기다리며 nip and ink on paper 29×42cm 2013
- [작품11] 어린이 자아 nip and ink on paper 42×29cm 2013
- [작품12] 숨은 아이 nip and ink on paper 29×21cm 2013
- [작품13] 쉬는 시간 brush pen, gesso on panel 90.9×60.6cm 2013
- [작품14] 울타리 속 아이 nip and ink, gesso on printed fabric  
53×45.5cm 2013
- [작품15] 아이들의 연극 brush pen, milk-white acrylic on printed fabric  
100×80cm 2013
- [작품16] 思索 brush pen, milk-white acrylic on printed fabric  
34.8×24.2cm 2013

## 도 판 목 차

[도판1] Mayuka yamamoto Polar bear oil on canvas 116.7×91cm 2008

[도판2] Mayuka yamamoto Deer boy oil on canvas 162×227cm 2006

[도판3] 본인의 즉흥적 크로키 nip and ink on paper

[도판4] 골똥히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 포착 nip and ink on paper

[도판5] 본인의 동양화적 선 brush pen on paper

[도판6] 직물 위에 보호막 nip and ink, gesso on printed fabric

# I. 서론

본인은 어머니로써 아이를 보살피고 돌보면서 정성을 다해 보호해야 하는 의무감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동시에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관심이 어떠한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든든함과 정신적 안정을 주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기억했다. 어머니의 그러한 힘, 모성의 보살핌은 어른이 된 연구자가 더 큰 사회생활로 나가는데 커다란 원천이 되었다.

보살핌이란 정성을 기울여 두루 돌보아 주는 행위이다. “존재론적으로 이해될 때, 현 존재(dasein)는 돌봄이다.”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1889~1976)는 돌봄(sorge)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보고, 돌봄에 존재론적 의미와 원천을 두었다. 보살핌을 주고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이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보살핌이 주는 사랑의 힘일 것이다.

다양한 보살핌의 모습 중 인간의 기본적 인격형성, 지적 발달, 신체적 건강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모성적 돌봄 또는 양육의 경험을 통하여 실질적 자아 안에서 추구하는 내면의 자아와 아이를 향한 모성애를 작업에 표출하고 담아내었다.

하지만 만약 딸아이를 향한 연구자의 어머니 역할을 제외한다면 나를 향한 나의 역할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적 역할을 배제한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존재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수는 없는 걸까? 이러한 의구심으로 이상적 자아를 쫓고자 하는 심상이 선묘드로잉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필자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충실한 보살핌처럼 아이를 더 잘 돌보고 보살핀다면 아이는 차갑고 냉정한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상처를 갖고, 긍정적인 자기치유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원(祈願)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나아가 이데아적 자아를 향한 과정에서 어린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것임을 궁극적으로 인지하고, 어머니로써 느낀 모성보호 역할을 통한 내면의 자화상을 작업의 이미지로 어떻게 표출해 내는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본인의 성장배경에서 알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집착과 모성으로써의 체험을 통하여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또한 엄마와 아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트라우마를 숨기지 않고 극복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지하며 어린이상으로 보여주는 이상적 자아를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주된 소재인 종이, 펜촉, 붓 펜의 바탕 재료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이의 단단하게 맺어진 세계와 이상향의 공간을 보여주며 단순함을 넘어서 추구되는 선묘드로잉을 고찰한다. 그리고 자연물과 원형, 직물과 간결한 색채 등을 활용한 상징성을 본인의 작품에서 모성표현 확장의 개념으로 보고, 연극적 상황연출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심층 깊게 작품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본문의 내용을 회고, 정리한다.

육아는 어머니에게도 불완전함으로부터 완전히 오르려는 가치 있는 일임으로써 본인의 모성 체험은 여성적 힘의 원천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한 인간으로써 성장한다. 결국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보살핌을 주고받는 주체와 객체의 경험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자아를 찾으며 모성의 보호막으로 이상적 상(像)이 어떻게 어린이와 자연으로 결합되고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는지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 1) 모성역할을 통한 내면 관찰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은 아이의 인격과 성격 형성의 근원이며, 인간의 인생에서 중대한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어머니의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자라왔고, 어른이 된 현재 어머니로써의 상태(motherhood)<sup>1)</sup>에서 모성애(maternal affection)<sup>2)</sup>를 발휘하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어린이인 나의 아이는 반드시 나(어머니)를 필요로 한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귀엽고 작은 호기심의 몸짓은 보살피는 나(연구자)를 시종일관 매료시켰고, 매일매일 아이를 쫓고, 아이를 알고, 아이를 잡고, 아이의 세계를 구축해 주기에 힘썼다. 눈에 보이는 아이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보람과 긍지를 주었다. 때로는 어떠한 거름망 없이 쏟아지는 아이의 질문에 이미 멀리 와버린 현재의 내가 무어라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 멍멍함이 들기도 하지만 명랑하고 생기 가득한 아이의 모습을 골똘히 보고 있으면 저 순수함과 단순함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즐기게 되고 나아가 어린 시

---

1) 모성(motherhood, 母性) : 여성이 태어나면서 지닌 어머니로서의 천분을 총칭해서 모성이라고 한다. 여성은 자기의 체내에서 태아를 키우고 분만해서 그 생명을 건전한 인간으로서 발달시킨다는 사명을 가지며, 그를 위해서 신체의 해부적, 생리적, 기능적 특징과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모성애(maternal affection, 母性愛) : 생활력이 불충분하고 발달이 미약한 유아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진 애정을 말한다. 특히 보호, 염려, 돌봄, 접근, 접촉, 생리적·심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행동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 -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소

절의 자아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 그저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 별다른 특징이 없었기 때문인지 부모님도 나에게 많은 걱정도, 큰 관심도 두지 않으셨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에 들어간 어느 날, 우연히 본인의 병약(病弱)함이 드러났고 순조롭고, 조화로워 보였던 나의 삶은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다.

이 사실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고, 나는 그들을 보며 나에게 병약함이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임과 동시에 숨겨야 하는 비정상적인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본인이 살면서 존재자체만이 아니라 어떠한 역할(병약함)이 있어야만 나의 존재가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집착이 형성되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콤플렉스(complex)는 내안의 단점을 더욱 억압하고 회피하게 만들었다. 원인은 그냥 던져진 것이라고 수없이 생각했고, 다시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남들과 다른 나를 보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주었다. 학창시절, 나의 내면을 관찰하기를 덮고 나를 보는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했고, 남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자아를 인식 하였다. 학교와 회사라는 소속단체에서 맞는 역할을 모나지 않게 함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자격(資格)을 주는 것과 같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 모성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에야 돌아본 나는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했던 순응주의자, 근원주의자적 성격으로 고정되었고 일방향적이고 완고하며 외곬수적인 인격을 만들었다. 또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유년시절을 떠나보낼 수 없어 타인이 나를 보기에 좋은 장점만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다. 더불어 딸아이까지 잦은 병치레를 겪으며 더욱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 순탄함을 추구하며 가정의 울타리 안에 안주 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아이를 향한 반복적, 일괄적 충실함은 종종 연구자의 정체성에 질문하게 되었다. 사르트르(Jean Paul Charles Aymard Sartre, 1905~1980)가 “타자가 보는 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연기하려 들고, 또 그 타자 앞에서 ‘포즈를 취하려’는 태도가 그것이다.”<sup>3)</sup>라고 말했듯이, 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을 연기하는 연구자 자신을 관찰하며 타자의 시선으로 범벅된 사회적 역할을 배제한 원래의 본인, 예전의 본인과의 거리를 느꼈고, 연구자의 순수했던 어린 아이의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또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린 아이였던 연구자조차도 부모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하고 연기하지 않았는가를 기억하며 인간 존재의 가치에 의문을 추궁(追窮)하였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역할이 자아임과 동시에 이는 몹시 당연하고 자연스런 본능이라고 다독여 왔다.

하루하루가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로 채워진 채 지나가 버리고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마치 연극을 하듯 성실히 그 하루하루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본인의 모습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것이 바로 그림이다. 자신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여타의 역할을 배제한 나는 누구인가 의 물음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작업은 근본적으로 본연의 내면세계를 외부로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자아심상(自我心象)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은 것이다.

---

3) 장 폴 사르트르, 저자 변광배, 출판 살림, 발매 2004.06.15

## 2) 엄마와 아이, 그리고 세상

어린 시절 따뜻하게 돌봐 주는 부모님과 접촉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성격과 정신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힘이다. 스위스의 교육자이자 사상가인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 역시 “가정은 도덕의 학교이다” 라며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은 가족환경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어머니는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에게 절대적이며, 다른 어느 가족도 대행할 수 없고 고유하고 특이한 역할을 담당해주는 중요한 양육환경이 된다. “엄마 없는 아기란 없다.”라는 위니캣(Donald W. Winnicott, 1896~1971)의 유명한 경구에서처럼 아이는 본질적으로 엄마-아기 관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함으로 시작한다. 페스탈로치의 “어머니는 하늘이 내린 교사”라는 말과 같이, 어머니와 자녀의 오랜 시간에 걸친 감각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모성애가 아동 발달의 원동력이라 보았다.<sup>4)</sup>

절대적 의존기와 상대적 의존기를 지나 독립을 향해 가는 아이는 어머니의 관계에 따라 기본적 신뢰감이나 기본적 불신감이 형성되고 신체적 발달에서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나 도덕성의 발달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어린이의 관계는 어린 아이의 보호와 성장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이고 아이의 사회 및 세계생활의 매개 역할을 하며 어린이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조건들, 즉 신뢰와 안전과 사랑의 감정을 채워준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뿌리를 만들어주는 모성애는 세심한 보살핌을 주고받는 경험을 바탕으로 필연적인 모성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맺어지고 묶여지게 한다. 서로 간의 유대가 강화됨은 곧, 인간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

4) J.H.PESTABZZI , 『페스탈로치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음』, 양서원출판사, 1999년 11월 20일

수 있는 정신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과거 연구자의 7세(1980~90년대)와 지금(2014년)을 살고 있는 연구자의 아이(2008년생)의 일과에는 유치원(또는 유아원) 이전 시기와 유치원 시기, 초등학교 시기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현대화된 사회로 가족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함으로써, 과거에 조부모를 비롯한 여러 가족 성원에게 분담되었던 어린아이의 양육과 교육이 어머니에게 전담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매체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놀이문화 및 공간이 상당히 달라졌다. 놀이공간이 과거에는 집안보다는 주로 집 밖의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과 떨어진 도상적 시대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듯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오늘날의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자연과 멀어지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더욱 더 세심하게 안전하게 지켜야만 하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시대를 반영함으로써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교감을 전달할 수 있다. 예술가 또한 개인적인 감수성에만 의지해서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 받은 전통양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의해 창작한다. 연구자는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딸아이와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달라진 시대의 흐름 안에서 더욱 섬세하게 돌보고, 정성 어린 염려와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아이의 존재를 깊이 있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화가는 ‘주변(周邊)’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돌레를 호흡하며 자기 자신의 언어로 도야(陶冶)해야 한다. 나는 어린 아이를 그리는데 관심을 지속시키고 의미를 파고 들어가 탐구 하였다. 본인의 아이와 함께 하는 공간이야말로 모성입장에서 얻었던 순수한 기쁨과 만족의 경험이며 창작하고 표현하는 기쁨의 소재(所在)인 것이다.

### 3) 이상적 자아 찾기-어린이 상

본인에게 일상속의 케어(care)를 받는 아이를 관찰함은 그것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아이의 특유한 표정의 얼굴을 그리는 일,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보여 지는 모습,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려내는 일 등 본인의 작업에서 두드러진 것은 어린이 대한 깊은 관심이다. 본인이 어린이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무한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 존중되어야 할 시기, 가장 순수한 존재로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았기에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시기, 인생 중 가장 감성이 풍부하나, 냉정함이나 이성적 판단력은 떨어지는 시기, 순진, 단순, 미숙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시기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순응성·모방성·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에 대한 조력과 지도가 발달의 초기 단계에 요구된다.

연구자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아이를 위해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해주는 역할을 행함으로써 본인의 내재되어 있던 원초적 행위와 자유스러운 사고(思考)가 그동안 학습되어 간단하게 만들어진 사고를 넘어 자아의 원형(原形)을 열리게 하여 존재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나 자신이 이러한 역할로 인해 아이에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갖게 했고 이것은 그 어떤 때보다 자신을 의미(有意味)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의 『존재와 무』(1943)에서 기술되고 있는 타자(他者)론에 의하면 타자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부여받기 위해 내가 그 앞에서 연기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타자가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해준다면(물론 나는 그 이미지가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다) 내가 그 이미지를 수락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항상 존재한다고 한다. 이 경우는 특히 타자에 비해 자신들의 존재론적 힘이 약한 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힘이 강한 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을 대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sup>5)</sup>

마유카 야마모토(Mayuka Yamamoto, 1963~)의 그림에서도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모호한 배경 속에 있는 어린이를 볼 수 있다. 이 작가 역시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자신의 유년시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유년기의 상처나 원초적인 공포 같은 감정을 더듬어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물이 동물모양의 옷을 입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유년기의 상처와 원초적인 두려움이 가득 찬 불안한 눈빛으로 관람자를 응시하는 그림 속 아이는 작가의 아이이면서 동시에 작가 자신의 유년의 초상이기도 한 것이다.



<sup>5)</sup> 타자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한 회극, 네이버 지식백과 - 장 폴 사르트르, 2004.6.15, (주) 살림출판사

[도판1] Mayuka yamamoto Polar bear oil on canvas 116.7×91cm 2008  
(左)

[도판2] Mayuka yamamoto Deer boy oil on canvas 162×227cm 2006  
(右)

본인의 그림에서 보여준 어린이 역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연약한 딸아이임과 동시에 보살핌을 받았던 어린 시절의 초상(肖像)이다. 하지만 나의 원초적인 모습과 가깝던 어린 시절을 향해 역행(逆行)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재하고 있는 유약한 실제적 자아의 자화상(自畫像)이다. 지금의 본인 삶에서 모성애라는 이타적(利他的)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역할은 곧 본인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이다. 이러한 의존적이고 조건적인 연약한 내재적 심상이 딸아이를 통하여 어린이 상(像)으로 드러났다. 굳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어린이들은 실은 아주 유약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사랑받으려 무던히 애쓰는 역할을 하며 그것은 곧 본인 자신인 것이다. 자기역할과 의무 등의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이성적 본성인 페르소나(persona)<sup>6)</sup>에 지나치게 동일시한 본인은 지금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에 갇혀 버려 고유한 자신을 잃고 외부에만 투사시키려 하는 열등감에 갇혀있다. 나는 작업을 통하여 무의식을 의식화 하며 스스로 상을 찾고 진정한 자기실현(自己實現)을 바라는 바이다.

둘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어른으로써, 또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어른이 되어버린 본인으로써 어린이의 존재와 가치에 고찰하게 되었다. 마테를링크(Maurice Maéterlinck, 1862~1949)의 몽환극(夢幻劇) 『과랑새』

---

6) 페르소나(persona) :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그림자와 같은 페르소나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며 자아의 어두운 면이라고 말했다. 자아가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영역을 통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라면 페르소나는 일종의 가면으로 집단 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 주인공 킬킬과 미틸은 요정의 도움으로 고양이나 개와 같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빛, 물, 불, 빵, 우유, 나무 등과 같은 원소 혹은 물질의 영혼을 보게 된다. 마테를링크의 극에서는 이렇게 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는 사람이 주로 노인 혹은 어린이로 나타난다.<sup>7)</sup> 고착된 사고로 굳어진 본인에게 본질적이고 유연하며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딸아이에게 오히려 답을 얻고 싶기도 했다.

나는 어린이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존재이고, 존재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이상적 상을 추구한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이 한 마디면 충분하다. 어린이에게는 정해진 쓰임도, 정해진 미래도 없기 때문에 자칫 보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암담함과 슬픔에 방황의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sup>8)</sup> 아이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함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일 것이다.

이렇듯, 궁극적으로 본인의 작품의 어린이 상(像)은 이상적 자아(ideal ego) 또는 이상적 자기(idealized self)를 상징한다. 자크 라캉(Lacan, Jacques, 1901~1981)의 이상적 자아(ideal ego)는 유아기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는 이상형(理想型)이다. 라캉에 있어서 이상적 자아는 주체가 동일시하는 투사된 이미지이며,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 형성체로서 거울 단계(Mirror stage)<sup>9)</sup>에 근원을 두며 상상계에 속한다.<sup>10)</sup> 즉, 작품 속 어린

7) 모리스 마테를링크, 『파랑새』, 이윤복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출판사, 2011

8) 콜라스 귀트망, 『나는 어린이입니다』, 그림 텔핀 페레, 역자 강인경, 베틀북 출판사, 2012  
원제 Lenfant - 출판사 서평(2012년 소시에르 상 수상작 선정 이유 중)  
<http://book.naver.com/bookdb/>

9) 거울 단계(Mirror stage) : 용어는 자크 라캉이 창안자가 아니고, 앙리 발롱(Henri Wallon)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글 속에서 거울단계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거울단계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인간 존재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이가 거울 속에서 자기 이미지를 인식해 가는 장면을 설명한다.

10) 자크 라캉-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의 이상적 자아 상징은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가리키는 이데아(idea)<sup>11)</sup>를 향해 있다.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공간은 이상향(理想鄉)을 위한 유토피아(utopia)<sup>12)</sup>인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본인의 경우 유약하고 의타적인 나를 숨기고 조화롭고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간의 차이가 크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실제 내 모습과 부모나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나의 모습과의 차이가 커서 사회적 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미리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실패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3)</sup>

나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며 존재를 인식함이 아니라 어린이의 존재처럼 도움을 주고, 받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감추고 숨기고 억압된 감정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고 싶다. 이는 딸아이를 향한 엄마로써의 무한한 바람이기도 하다. 나의 아이가 조건 없는 이상적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완벽하게 자라길 염원(念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아이가 본인 내면의 필요와 욕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용기 있게 주체적,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고 자아(自我)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면 한다.

---

11) 이데아(idea) :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으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재를 뜻한다. 플라톤(Plato, Platōn)은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原形)이라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현실의 사물은 단지 이데아의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일시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이데아는 불변하며 항구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진정한 철학자는 가시적인 사물의 세계가 아닌 사물의 본성과 원형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 유토피아(utopia) :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理想鄉)을 가리키는 말.

13) 자기 개념, 글 이윤형, 발행 2014.04.07 <http://navercast.naver.com>

## 2. 작품의 조형적 표현

### 1) 선묘(線描)드로잉

아이는 세상의 시작이다. 드로잉 역시 미술의 시작일 것이다. 미술의 역사에 있어 드로잉은 그리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로서 오랫동안 창작과정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매체의 특성상 제작과정이 까다롭고 결과물이 항구적(恒久的)인 형태를 지니는 작품들과는 달리 드로잉은 다루기 손쉬운 재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기법을 구사하여 자신의 조형의식을 표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다.

드로잉(drawing)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과 그것의 형성과정, 활동, 성장, 소멸 등을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인상의 파악, 세부의 기록, 건축, 조각, 회화작품의 착상의 전개를 위한 스케치로 시작하여 운동감, 명암법, 해부학 등의 회화적 표현의 탐구 및 표현기술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완성작의 세부 또는 전체의 구도를 뚜렷이 나타내기 위한 습작(習作)이기도 하며, 현대에 와서는 독립된 완성작품으로서의 소묘(素描)로 구별된다. 이전까지는 드로잉이란 조각이나 회화작품을 위한 스케치나 습작으로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밑그림으로서의 드로잉은 단순히 대상의 구조를 그려내는 데 국한되지 않고, 회화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다른 전공의 밑그림이 아닌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제는 드로잉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이해해야 한다.<sup>14)</sup>

드로잉의 대부분은 즉흥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작가가 가진 최초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그 사고와 과정을 느낄 수 있다. 무겁고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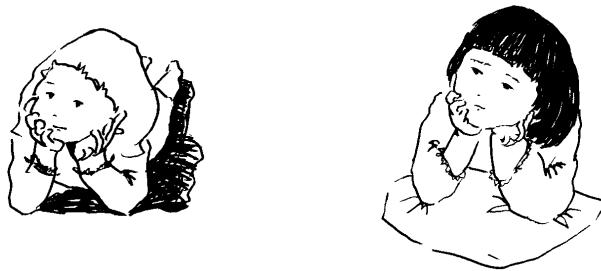
---

14) 『드로잉이란 무엇인가요?』, <http://tip.daum.net/question, okok610>, 2012.05.10 16:54

있는 작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연구자의 필치와 생생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그리는 대상과 작가가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상(像)을 선으로 직접 그려내어 어떤 순간의 인상을 재빨리 옮겨 그리는 크로키(croquis)형식으로 먼저 작품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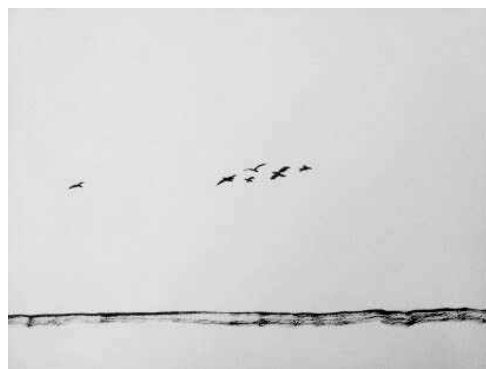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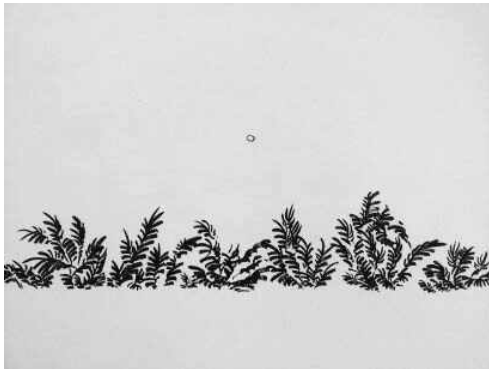
[도판3] 본인의 즉흥적 크로키 nip and ink on paper



[도판4] 골똘히 생각하는 아이모습 포착 nip and ink on paper

아이라는 존재는 정물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이를 살펴보는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다. 본인은 순간적으로나마 안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이를 모티브(motive)로 선택하여 손가락의 촉각(觸覺)을 통해 영원히 변함없는 조형적인 표현 속에 정착(定着)시키고자 하였다.

고유의 가벼움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본인의 선묘드로잉 중심은 ‘선(線)’이다. 연구자는 초등학교시절 서예(書藝)를 통해 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곧 운동태를 근본으로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양화(한국화)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쉬지 않고 움직이며 탐구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동양화의 선 드로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직관적이며 되풀이하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그려지는 그림이 동양화의 특징과 같다. 동양화의 선(線)은 면의 상징적 표현이며, 그 선에는 작가의 감정, 개성, 화면의 생동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도판4] 본인의 동양화적 선 brush pen on paper

연구자는 먹물의 번짐보다는 극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단단한 펜촉과 끈끈한 점도가 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필압(筆壓)을 드러내었다. 이는 아이를 보육(保育)하는데 있어서 임하는 자세와 같다. 선을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그려 완성하는 방식은 먹물이 종이에 쉽게 번져 질 수 있는 유동적인 자세 보다 이

성적이고 확고하고 철저하면서 완벽하게 새겨 넣고 싶은 보육자로서의 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아이를 돌보며 위험으로부터 한 치의 부주의(不注意)를 허용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양육자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본인은 색채보다는 흑백의 선적인 수단을 통해서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 흑색(黑色)은 가장 본질적인 색채이다. 물체 자체의 양감, 질감 등에 치우치지 않고 명암을 최소화하여 물체가 지닌 존재에 더욱 집중하고 주의하여 그린다. 구체적 정보를 표현할 수 없고 채색이 없는 검정색의 선묘형상에서 선들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은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순수한 아이의 상태와도 같다.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가 “나는 다만 선만으로 그린다. 본질의 명에에서 풀려난 순수한 정신의 표상(表象)인 선을 써서 그린다. 분석적인 군더더기를 잘라 버리고, 대담하게 본질 자체에 육박한다.” 라고 했듯<sup>15)</sup> 빛에 의한 명함표현을 배제한 선(線)의 집착은 곧 본인이 경험한 심리적 본질을 이끌어내는 주된 조형언어이고, 본인은 이것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써의 작가가 아니라 산다는 것과 그린다는 것을 일체화 시키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린다는 것을 기술로써 파악하지 않고, 한 어머니의 인생에서 섬세한 모성의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본인의 욕구이다.

---

15) 『파울 클레와 조형성』, happy-times.tistory.com/56965, 2011.02.21

## 2) 드로잉을 위한 재료

어머니에게 감싸며 자라는 어린이는 유약하여 타자에게 의지하지만 충분한 사랑은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본인 작품의 전개방식에 있어서 ‘순수한 식물의 섬유를 원료로 엮은’ 종이를 첫 번째 중요한 재료로 선택하였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와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단지 표정이나 동작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 문자나 실제 사물을 조합하여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미술사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종이의 발명은 회화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표현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강함과 동시에 종이의 가장 큰 결점은 ‘약하다’는 것이다. 습도, 햇빛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고, 얇아서 외부압력에 찢어지기도 하며 화기에 약하고, 다른 이물질에 빠르게 오염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종이는 곧 변화가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쓰이고 필요 없어진 종이는 찢어버리거나 뭉쳐서 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모아서 재생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각장의 연료로도 불태워 활용될 수 있다. 본인은 결국 종이의 연약함과 쓰임에 따른 변화됨이 어린이, 또는 어린이를 둘러싼 상황과도 같은 것으로 사려 되었다. 어린이 역시 존재자체는 유약하지만 안전의 경험을 겪으며 어떠한 보살핌을 받느냐에 따라 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종이에 집중한다.

연구자의 두 번째 재료는 바로 펜촉이다. 잉크나 먹을 문혀 쓰는 끝이 뾰족한 쇠붙이 펜촉은 오목한 안쪽에 타래를 이룬 쇠줄을 붙여 잉크를 찍어 오래 쓸 수 있게 만든 인류의 오래된 필기구 중 하나이다. 펜촉은 현대에 와서 잉

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언제나 잉크가 원활하게 흘러나와서 일정하게 쓸 수 있는 만년필(萬年筆)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편리한 만년필보다는 시대를 거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펜촉에 잉크를 묻히고 이리듬 양쪽 발이 모두 종이 면에 닿도록 해서 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보살핌을 받아오는 경험을 하였다. 어른이 된 본인은 과거로 잊혀져 가는 근본적 어머니의 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펜촉에 잉크를 묻혀 채우고 그리고, 마르면 또 채우고 그린다. 또한, 펜을 잉크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적시는 역할을 만들어 작품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아이를 좀 더 천천히 주의 깊게 응시하는 순간을 늘리고, 거둬들이는 역할이 되는 케어로 돌봄의 일이 본인의 존재 가치를 채운다.

펜촉과 잉크는 오랫동안 쓰여져 왔던 것, 전통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매우 섬세하며 조심스러우며 부드럽게 다루어야 하는 재료이다. 펜이 한번 종이에 닿기 시작하면 필압에 따라 종이위에 미끄러지듯 나아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배제한 절제의 느낌을 보이도록 하였다.

펜촉의 볼록한 부분 형태를 보면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몸체가 떠오른다. 일정량의 잉크가 흘러나오는 흘쭉해지는 부분의 통로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및 질과도 같이 느껴진다. 연구자의 손길에 흘러가는 진하고 끈끈한 점막의 잉크는 끝없이 채워지는 어머니의 궤적(軌跡)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가 앞으로의 많은 시련과 고난 등을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라며 트라우마(trauma)가 생길 상처를 주지 않게 부단히 노력한다.

또한, 자칫 부러지기도 쉽지만 한편으로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크롬 또는 니켈 등으로 만들어 날카로울 수 있는 이면(裏面)을 가진 펜촉의 모양은 마치 조각칼 같기도 하다. 어린 시절 때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내재(內在)해 있다. 그것은 배우자를 만나 가족을 형성하면서 드러나고, 또 자신의 아이에게 '되물림' 될 수 있다. 종이 위에 새겨 넣는 듯 자국을 내는 펜촉의 움직임은 어린아

이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길 무엇보다 더 바라는 모성의 바람을 각인(刻印)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모성애를 확장하기 위하여 직물(織物)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불이나 쿠션, 옷 등에 누비질을 하여 무늬를 두드러지게 만든 퀼트(quilt)로 쓰였던 천을 이용한 것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아이를 위한 용도로 처음 쓰였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를 다시 연구자는 미술 작품으로 활용한 것이다.

자연의 식물배경의 천은 인공적이고 가공적인 매체이며 이는 아이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어쩌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사회를 인지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길로 아이를 직접적으로 둘러싼 이불, 배게, 옷가지는 모성애의 과정이며 모성으로써의 역할로 만들어진 행위의 흔적이다.

천 역시 종이와 같이 자연에서 가져온 직물(織物)이다. 가늘고 얇은 실들로 이어져 짝 묶여 있는 천은 살갓에 직접 닿기 때문에 종이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 올이라도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와의 절대적 관계와 같이 천을 이루는 실<sup>16)</sup>들은 서로 몹시 정밀하게 연결되어 짜여져야 하는 밀도 있는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본인에게 색에 대한 채움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감이 마르면 좀 더 부드러운 표면을 위해 사포로 고르게 정리해주고, 그 위에 재료의 특성상 단단한 펜촉보다는 빠르고 부드럽게 표현되는 붓 펜(brush pen)으로 사유(思惟)를 포착하여 잡아낸다. 위니캣(Donald W. Winnicott, 1896~1971)이 주관적인 환상의 세계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의 세계도 아닌 두 세계가 중첩된 이 공간에서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듯, 아득하고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이상적 자아를 그린다.<sup>17)</sup>

---

16) 실 : 고치, 털, 솜, 삼, 나일론 따위를 가늘고 길게 자아내어서 꼬아 만든 물건. 흔히 피륙을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 데 쓰인다.

17) 도널드위니캣, 『놀이와 현실(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붓 펜은 서예나 동양화에서 쓰는 붓과 펜을 혼합해서 만든 것으로 내부에는 먹물이 수장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붓 체 외면에 별도 용기의 먹물을 묻혀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의 붓으로 다양한 필압(筆壓)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섬세함과 속도감을 주는 특성은 본인을 매혹시켰다. 유연한 붓 펜의 망설임 없는 움직임은 본인의 행위에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도와준다. 세밀한 필촉은 데포르메(déformer)<sup>18)</sup>된 곡선을 만들고 풍부한 리듬감을 형성하여 작품전체의 형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정신 표현의 매체가 된다. 그런다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이를 초월하여 작가의 자각(自覺)을 반영코자 한다.

---

18) 데포르메(déformer) : 어떤 대상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 또는 달라지게 하는 일.

### 3) 모성애의 이상향(理想郷)

#### (1) 자연의 보살핌

작품 속에 보여 지는 아이들은 자연의 식물들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나는 아이를 탐구하고 관찰한 경험을 기억하려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한 루소의 주장이 의미하듯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교육에 동조(同調)한다.<sup>19)</sup> 인간을 살리고, 감동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自然)에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린이에게 자연과 자유를 만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 본다.

자연속의 대지는 그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생명과 운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예부터 이는 여성의 생식 및 양육 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길러주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자연의 품속에서 자유와 포근한 보살핌을 받는 동시에 밖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보살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린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아이만의 가치관 세계를 구성해 나간다.

가장 자주 발견되는 식물이미지는 아이의 주위를 감싸고 울타리를 만드는 넝쿨식물들이다. 넝쿨식물은 다른 식물이나 물체에 지탱하여 위로 자라는 식물

---

<sup>19)</sup>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Emile』, 1762년

: 루소는 인간의 삶은 자연과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자연 상태와 멀어질수록 불행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태어났을 당시에는 자유롭고 선량하지만 인간들이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 등에 의해 악한 것에 물들고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자연과 본성에 가까운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한, 루소는 어린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통제된 자유 하에서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경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단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성장발달 모든 단계에서 자유롭게 각 단계의 발달과업을 누리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간은 가장 잘 성숙하고 완전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로 혼자서는 절대 곧바르게 자라기는 힘든 어린이와도 같다. 둘러싼 환경에 따라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유약함과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태양을 향해 손을 뻗는 점에서 아이와 식물이 닮은 듯 조화를 이룬다. 만경식물(蔓莖植物)<sup>20)</sup>이라고도 하는 이 넝쿨들은 아이의 활기찬 성장과 단단해 지고자 세상과 맞서는 삶을 뜻하기도 하다.

넝쿨식물들은 아이를 위해 한층한층 쌓여진 안전지대로써 울타리를 연상케 한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결합하여 한결같은 어머니의 사랑과 세심하고 연속적인 보살핌의 손길이 된다. 울타리는 인간 삶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양상 중 하나이다. 인간의 삶 전체가 가족, 집, 마을, 친족, 집단 등의 물리적 혹은 추상적인 울타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볼르노(Bollnow)는 “경계는 인간 본질의 구성요소이다.”말하며 인간의 삶이 실제 구현되는 삶의 체험적 공간에 주목하고, 인간이 공간에 진정한 의미로 거주하며 외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sup>21)</sup>

보호막으로써의 울타리는 세상 밖의 위협에서 막아주는 방어막으로써 보살피려는 어머니의 본능임과 동시에 어찌면 아이에게는 모성의 구속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 어머니의 보호가 지나칠 경우에 아이의 공격성이 억압되거나 또는 아이가 대상과 직면하지 못하고 대상을 외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어머니는 불안으로부터 안정적인 환경을 공헌하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감당하게 해 주어야 함으로 그 무엇보다도 섬세함을 요(要)한다.<sup>22)</sup>

20) 만경식물(蔓莖植物) : 땅위를 기거나 다른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식물.

21) 윤재홍, '울타리'의 교육인간학적 의미 연구 = (A) study of the meanings of 'Ultari' in terms of pedagogical anthropology,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2) 도널드 위니콧, 『성숙환경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2) 단순함을 넘은 여백

실제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다 보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커서 다른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 그래서 연구자의 그림 속 인물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여백들이 많이 등장한다.

회화에서 여백(餘白)이란 실제로 사물이 존재해야 할 곳에 어떠한 효과 없이 공간을 비움으로써 혹은 마치 미완성으로 보이는 듯한 과감히 생략된 공간을 뜻 한다. 여백은 말 그대로 생략된 표현에 그칠 수도 있으나 적절한 배치와 작가의 표현력으로 인해 조형구도의 절제미, 과감한 조형 구성력 등을 발휘하게 된다. 동양화에서의 여백 역시 미완성의 덜 그려진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해방감과 여유 있는 멋을 상징한다.

동양화는 예부터 여백을 널리 퍼져있는 기(氣)의 표상(表象)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의 초기(10세기) 산수화가들은 ‘산수의 기상’을 그리기를 의도하였고 그 후 여백은 빛과 기운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송의 사대부(문인)들이 시화일치론(詩畫一致論)을 제창하자, 그림 속의 여백은 시정이나 여운을 자아내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이후 화가들은 수묵화를 자신들의 종교이념을 표명하는 도구로 간주하여, 여백은 석묵(石墨)<sup>23)</sup>이나 감필(減筆)<sup>24)</sup>과 더불어 표현 역제의 의의를 가지고 많은 걸작들을 낳았다. 작가의 정신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화가가 다 채우지 않고 남겨두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우도록 하는 미학을 여백의 미(美)라고 한다.<sup>25)</sup> 결국 연구자의 여백은 주제를 강조하고 사물의 본성과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표현방법이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여백은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빈 공간을 상상하게 하며

23) 석묵(石墨) : 먹을 금처럼 아껴 쓴 기법

24) 감필(減筆) : 형식적인 면을 극도로 생략한 동양화 기법

25) 조해주 展, 『갤러리 M 갈등-풀다 답다!』, <http://blog.daum.net/chukje>, 기분좋은날

2014.09.27 12:33

반대로 무엇인가 그려진 표현 부분에 시선이 다시 한 번 집중되어 시각적인 흐름을 유도한다. 배경의 공허한 공간들은 반추상적 느낌을 갖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며 편안함과 불안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

자크 라캉(Lacan, Jacques, 1901~1981)은 승화를 이상화나 도착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여 또는 비어있음으로 보았다. 승화의 공식에 공백(emptiness)의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현실의 모방이 아닌 현실 너머의 실재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예술은 '숨겨진 현실' 즉, 실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창조행위이다. 라캉에게 공백 또는 비어있음은 승화와 예술을 실재와 관련 맺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sup>26)</sup>

아직 아이의 세계 역시 온전히 구축(構築)된 것이 없다. 연구자의 여백은 많은 이미지로 채워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공간, 즉 아이가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세상, 가치관 등을 담을 수 있는 펼쳐진 미래, 알 수 없는 미지의 상상 세계와 같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무엇이든 흡수할 수 있는 백지와 같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빈 그릇과 같다. 여백은 곧 어린아이의 세계와 동시에 이상(理想)적의 공간인 것이다.

---

<sup>26)</sup> 자크 라캉, 2008.10.10, ㈜살림출판사 - [네이버 지식백과] 공백

### (3) 모성의 연출(演出)

작품 속 요소들은 연극적인 연출을 갖춘다. 본인의 작품에는 무대 위의 구성과 같이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인물과 필요한 요소(要素)만을 제시한다.

모성의 역할을 확장시키고, 무대배경과 같은 효과를 주는 직물 위의 드로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를 위해 만든 이불, 머리맡에 비는 쿠션 또는 아이의 신체를 감싸는 옷가지의 남은 천을 바탕 재료로 선택한다. 외곽에 인쇄 이미지는 남기고 화면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얀 젯소(gesso)물감을 부드러운 붓질로 여러 번 칠함으로써 바탕의 직물이미지가 최소화되는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를 준다. 자세히 보면 종이와 다르게 천은 울 사이로 틈이 보이는 짜임을 느낄 수 있다. 이 틈새를 본인의 모성막 형상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감으로 메우고 채워나감으로써 모성의 역할을 더욱 드러낸다. 밀도감을 주는 이러한 표현 방법은 모성애의 보호구역(safe zone)이 소멸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더욱 생성되고 진화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도판5] 직물 위에 모성 보호막 nip and ink, gesso on printed fabric

엄밀히 말하면 [작품13]과 [작품15]는 젖소의 날 것 그대로 표현하였고, [작품14]와 [작품16]은 단순한 하얀색이 아닌 노르스름한 유백색(乳白色)<sup>27)</sup>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한 후 나오는 모유는 색이 진하고 희뿌연 젖빛이 감돌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희미하고 침투할 수 없는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레이어(layer)화 시킨 겹겹이 쌓인 얇은 물감 층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생산적 개념도 있지만, 천위의 가공적이고 나열되어있는 인쇄된 식물과 연구자의 넝쿨식물을 더욱 대조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곽의 인쇄 이미지를 칠하지 않음은 무대 위의 배우에게 쏟아지는 조명(照明)의 역할을 한다. 본인의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연극적 요소이다. 또한, 모성역할의 충실함 속에 또다시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보호막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만들어진 보호막 안의 공간은 이상향을 지향하는 상징적 표현 공간이기도 하다.

결국 식물위의 색체를 통한 레이어의 활용은 모성의 이중적 연출(演出)이고 모성표현을 더욱 확장시키고 견뢰(堅牢)하게 한다. 색, 면의 다른 회화적 요소를 적용함 본인이 더욱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의도적 보호 의사(意思)의 행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인물은 타자(관객)를 인식하듯 정면을 바라보며 무언(無言)의 말을 건넨다. 리얼리티(reality) 하면서도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의 포즈는 매우 정적(靜的)이다. 어린이는 어딘가 다른 생각에 몰두해 있는 순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는 또 한 번의 회상(回想)을 유도한다. 어른들도 누구나 한때는 어린이였다. 그렇지만 어른만 되면 그 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린이를 키우면서도 어린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矛盾)에 빠져들곤 한다.

---

27) 유백색(乳白色) : 젖의 빛깔처럼 불투명한 흰색. 젖빛이라고도 함.

어린이의 영역을 동경하고 접근하면서 본인은 어린이의 사고를 꺾 뚫을 수는 없을까, 어린 시절의 나는 어떤 생각에 잠기곤 했었나 등의 상념(想念)에 가득 찬다. 때때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통하는 공간이 있어서 아이와 나의 어린이가 만나는 꿈을 종종 꾀다. 감성에 젖었는지, 생각에 빠져든 건지, 녀을 잃은 건지 알 수 없는 어린이의 표정을 통하여, 본인이 어린이였던 때 사유할 수 있었던 세계와 이상적인 자아의 세계를 펜으로 단번에 포착(捕捉)하여 나타낸다.

#### 4. 작품 분석

##### [작품1],[작품2],[작품3],[작품4]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간편한 재료인 종이와 펜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온 딸 아이의 포즈와 느낌을 포착한다. 일련의 드로잉들은 본인에게 선으로 쓴 모성 일기(日記)와도 같다. 그려진 결과로써의 작품이라기보다 창조적 생성 과정으로써의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아이라는 모티브(motive)를 통하여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관적으로 다가간 드로잉들은 이후 작업에 많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작품1] 한 어린이는 놀란 듯 두 손으로 입을 감싸며 쏟아진 물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작은 투명 컵이 옆으로 덩그러니 누워있고 그 속에서 흘러나온 물도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아이의 동그레진 눈은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 컵이 아이가 쓰러 뜨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이는 컵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며 멈춰있다. 앞으로의 행동을 생각하는 건지, 보육자의 반응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쏟아진 물의 유기적(有機的) 형태를 관찰하는지, 어린이는 생각에 잠겨 있다. 어른 같았으면 즉각적인 상황판단으로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보였으나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는 어떠한 일에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주변의 구체적 요소가 배제된 채 화면에는 물 컵과 아이만이 존재하고 연출된 상황만을 제시한다. 크로키 방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려낸다.

[작품2] 아이가 물 컵을 쏟고 있는 찰나(刹那)이다. 손에서 컵을 놓친 듯 아이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컵과 쏟아지고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다. 꽤 당황한

순간 이였는지 얼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컵을 다시 잡지 못하고 있다. 무릎 밑까지 떨어지고 있는 컵의 물은 곧바로 큰 강물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컵에서 나온듯한 큰 강물의 위치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른보다 훨씬 크고 두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경험이 적은 어린이는 어떠한 상황도 더욱 불안하고 또는 더욱 흥미로워 할 수 있다. 큰물은 미래의 성숙해져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뜻 한 것이고, 쏟아지는 작은 물은 큰 세상으로 맞서 가야하는 아이의 인생을 표현한다. 여기서도 아이와 컵, 쏟아진 물만이 존재한다. 별견(瞥見)하고 있던 상상적인 요소를 형상화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3] 자연을 배경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아이는 정면을 응시하며 팔로 어머니의 목을 감고 있고, 어머니는 아이의 안색과 표정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말은 아이에게 평화로운 안도감에 몰입하게 만들고 간접적인 세상의 이야기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인다.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폐를 건강하게 하고, 멀리 보게 하여 시력을 발달시키며, 탁 트인 공간으로 위대한 자연을 넓은 마음으로 느끼길 바라는 모성애가 엿보인다. 표현의 이상성과 정확성의 모호함에서 먼 산과 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어머니의 심상과 이상적 사상의 상징체이다. 자연은 이로써 연구자 내면의 세계로 향하기 위한 촉매제(觸媒劑)인 것이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포즈(pose)는 [작품7]에서도 나타난다.

[작품4] 욕조로 보이는 탕 안에서 아이는 편안히 눈을 감고 누워있다. 가슴께까지 담긴 아이의 몸에서 난 팔과 다리는 따뜻한 목욕물로 무척이나 편안해 보인다. 물이 담겨진 욕조는 외부의 더 큰 물의 흐름에 맡겨져 떠다닌다. 여기서의 ‘물’ 이미지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와 어머니의 내부를 발현(發現)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몽상의 공간을 표상(表象)한다. 물을 통한 모성

은 근원적인 세계로의 갈망과 무의식적인 자아를 대변해 주는 상징이다. 또한, 물은 평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모성의 자궁을 의미한다. 아이를 둘러싼 공간적 배경은 막힘없는 강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여정을 도출(導出)한다. 아이를 태운 커다란 대야가 항해(航海)를 하듯 유유히 떠가는 형상은 물이 넘칠 듯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는 물결이 육조를 고요히 지탱하듯 보호받는 평안함을 주기도 한다.

### [작품5]

작품화면 속 처음으로 넝쿨식물이 등장한다.

도시공간의 놀이터 바닥은 예전 놀이터의 모래밭 대신 페타이어로 만들어진 탄성재(彈性材)로 포장되어 있다.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면역력을 약화시켰고, 아토피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하였다. 자연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일 것이다. 자연의 소재가 줄어든 건조로운 도심 속 아이들의 놀이공간에 싱그러운 풀내음이 풍요롭게 조성된 환경을 되돌려주고 싶은 의미를 담는다.

화면의 중앙에는 세 명의 여자아이들이 돌고래 모형의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돌고래란 동물은 꿈에서 협조자(協助者)의 의미를 띤다. 아이들이 협조자를 만나 순조롭게 해결해 성장함은 곧 모성의 깊은 애정, 사랑, 관심, 돌봄 등을 상징한다.

맨 앞 여자아이는 손잡이를 잡으며 만족스런 표정을 지으며 진취적으로 보이고,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는 앞 아이에게 의지하듯 안정을 취하는 듯 하며 맨 뒤에 여자아이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조심스럽다. 여린 잎들로 구성된 작은 식물들은 아이들 주위로 불규칙한 원을 그리며 감싸 안고 있다. 아이들과 넝쿨의 관계는 원근법상 전혀 맞지 않지만 아이들의 천진한 생

김새와 작은 이파리들의 요소는 꽤 조화롭다.

인물을 둘러싼 넝쿨식물들은 원형의 형태를 지향한다. 원(圓)은 우주의 만다라를 상징한다. 원은 세계의 주요한 종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원은 인간이 ‘본질적인 자아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바람’을 상징한다. 너와 나라는 분열된 의식을 극복하여, 주객이 혼용되고 궁극적으로는 분리된 의식을 통합하려는 ‘해탈(解脫)’ 또는 ‘신(神)과의 완전한 일치’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상징한다.<sup>28)</sup> 화면의 밖을 향하기도하고 안을 향하기도 한 원형의 넝쿨들은 유약해 보이는 본인의 어린 시절 자아(自我)임과 동시에 아이를 이상적인 공간에 이끄는 하는 모성의 역할이다.

## [작품6]

[도판2]의 크로키를 발전시킨 작품이다.

넝쿨 식물들의 형태가 [작품5] 보다 훨씬 진화하고 다양화되며 극대화된 양상을 띤 유기적 물질로 비쳐 진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작은 잎과 큰 잎들이 촘촘하고 치밀하게 모여 조화를 이루며 아이를 향하고 있다. 다양한 모양의 이파리는 곧 다양한 보살핌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로테스크(grotesque)하기도 한 식물이미지는 자연의 재현으로부터의 이탈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중성적인 잣대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이면(裏面)으로 나타난다.

넝쿨들은 얽히고설킨 마름모의 형태를 이룬다. 마름모꼴은 성장하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사방에 비춰지는 빛을 상징하기도 한다.<sup>29)</sup> 마치 정글 숲속 사이로 아이를 숨어 보는 듯한 설정은 관객에게 흥미로움과 긴장감을 준다.

식물세계 넘어 본 아이는 별거벗은 채 물가에 발을 딛고 있다. 자의식(自意

28) 에니어그램 강좌에 초대합니다, 에니어그램영성센터, [www.s-enneagram.com](http://www.s-enneagram.com)

29) 배리언 존슨, 『마름모꼴 내 인생』, 김한결 옮김, 놀 출판사, 2010

識)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아이의 머리카락과 발에 닿는 물의 부분은 잉크를 채웠다. 실제로 연구자의 아이에게 처음 바다를 보여주었을 때 아이는 낮설고 두렵지만 피하지 않았고, 꽤 높은 기대감을 갖고 흥분해 들떠 신기해했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을까?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내면을 들추며 어린이만의 사유(思惟)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 [작품7],[작품8],[작품9],[작품10],[작품11],[작품12]

이 일련의 작품들은 본인의 어린 시절 회상하고 이상적 자아를 위한 연작(連作)이다. 어린 시절 촬영했던 기념비적 사진들을 소재로 하여 펜촉과 잉크를 조각적 새겨냄으로 인식하고 작업하였다.

드로잉의 방식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톤(tone)이 나타났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촘촘히 채워진 선(線)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파리와 돌, 인간을 아우르는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처럼 모성의 힘도 사그라질 때도 있고 초인적으로 강하게 발휘(發揮)될 때도 있다. 이는 음지와 양지의 차별성을 보여준 표현의 확장(擴張)이다. 또한, 자연과 멀어져 가는 다양한 위험적 요소를 방어하고자 넝쿨, 대지, 물 등의 자연을 모성(母性)화 하여 조형언어(造形言語)로 제작하였다.

[작품7]과 [작품8]은 어머니와 딸들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녀(母女) 관계에 집중한다. 나의 어머니가 존재하고 현재의 어머니 역할을 본인이 경험하며, 훗날 딸아이가 어머니가 되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모성을 영감의 원천으로 다룬다. 인간과 여성의 순환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없이 놓쳐버린 보살핌들을 기억해 내도록 묘사한다. 펜촉에 잉크를 묻히고 그리기를 반복하

고, 지속적인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성의 인내심과 정성을 끌어올린다.

[작품7], [작품8]에 보여 지는 인물의 하단 부분에 빈틈없이 빼곡히 식물들이 뿌리내려 자라고 있으며, 이는 마치 넝쿨신발을 신은 것처럼 보인다. 인물이 식물의 한 부분처럼 돌아나는 듯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인물과 자연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형국이 된다.

특히 [작품7]의 인물을 둘러싼 식물들은 꽤 입체적으로 음영이 느껴진다. 아이에게 맞춰진 몹시 다양하고도 일관된 모성의 돌봄은 초점을 맞춘 듯 모아지고 때론 넓게 돌리는 본인의 선에 의해 표출(表出)된다.

[작품9]와 [작품10]의 두 명의 어깨동무를 한 어린이는 남매(男妹)이다. 본인은 외동딸을 키우고 있지만 본인의 어머니는 남매를 두었다. 놀이상대가 없는 외동은 부모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한다. 반면 형제자매가 있다면 두 아이는 부모가 없을 때 서로 의지하게 된다.

어린 시절, 유원지로 놀러 갔을 때 잠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오빠와 나는 어딘가에 걸터앉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선 안 되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꽤 오랫동안 느껴졌었다.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는 아이인 나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움직임의 제한 받고 자유를 빼앗김은 갑갑함을 주기도 하듯이, 이중적 양상을 띠는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작품9]의 인물너머로 멀리 펼쳐진 산맥과 [작품10]에 남아(男兒)가 입은 윗도리의 눈 덮인 산은 당시 얼음처럼 느꼈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생략적인 선묘(線描)로 표현하였다. 두 작품 모두 좌우 상칭(左右相稱)되는 넝쿨식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주관적, 장식적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10] 『엄마를 기다리며』에서는 여태 보지 못한 수초(水草)들이 섞여 있다. 어류와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힘든 인간에게는 물속의 시간이 더디 가는 듯하다. 엄마를 기다리는 틈이 아이들에게겐 물속의 흐름으로 여겨져 미리

오필립<sup>30)</sup>의 물풀 이미지를 본인의 방식대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11],[작품12]. 본인은 어린 시절, 두 발을 바닥에 대고 쪼그려 앉는 포즈 (pose)를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포즈는 나를 더욱 작게 만들어 숨겨주는 듯 했고 땅바닥과 가까워져 흙이나 작은 풀과 곤충을 관찰하기 용이하여서 그랬던 것 같다. 그 포즈를 통하여 종종 기묘하고 지루함을 달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 생각한다.

[작품11]에서 웅크린 아이의 주변을 근접하게 감싸는 넝쿨식물들은 꽤 인위적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기다란 팔로 안으려는 형상의 울타리는 근원적인 여성적 이미지인 대지에서 나와 아이를 돌보고자 한다. 미처 채우지 못한 여백의 부분은 아이의 또 다른 삶과 지식이 투영(投影)되길 바라는 모성의 축복을 의미한다.

울타리는 마치 동근 배지<sup>31)</sup> 같아 보이기도 하다. 나는 가끔 어른에게도 어린이의 신분 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배지를 만들어 달고 다니도록 하는 상상을 해본다. 이것은 집안에 어린 시절 사진을 액자에 넣어 배치하거나 앨범으로 간직하듯 오래도록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은 잉크로 검게 채워져 있다. 자기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작품6]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작품12]의 아이는 작은 몸을 숨기기 충분한 큰 암석(巖石) 뒤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돌의 주위에는 역시나 풀잎들이 있고, 아이의 앞쪽에는 물의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돌이 있는 자연을 세부적으로 묘사 표현하는 것보다 짧은 선들로 구성하여

---

30) 그린 미리오필립 (myriophyllum hippuroides) : 밝은 녹색의 가는 날개모양의 잎을 가진 유경수초.

31) 배지 : 주로 옷 칼라 부분 또는 가슴 부분에 매는 장신구로, 자격, 직위, 계급, 경력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상화한 모성의 내면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 속의 돌은 태초부터 모든 삶의 큰 축을 이루는 생태환경의 근원으로서 존재하였다.<sup>32)</sup> 동양에서 돌은 생명탄생, 풍요와 수호 등 신비로운 권능을 가진 소재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돌은 영원의 상징이었다. 인간 육체는 사멸해도 돌에 새겨진 모습과 이름이 생명의 지속을 보증한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형상의 암석은 생식력을 가진 것으로 믿기도 하였다.<sup>33)</sup>

화면에서 단단하게 응축되어 보이는 돌은 그 무엇보다도 무게감이 있고 쉽게 공격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돌은 곧 아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변함 없는 모성 보호막(保護膜)이 된다.

### [작품13]

펜촉이 아닌 붓 펜으로 작업을 시도한 작품이다. 붓 펜은 가늘고 단단한 펜촉에 비하여 훨씬 작가의 필압(筆壓)을 느낄 수 있다.

소풍을 온 네 명의 아이들은 일렬로 풀밭에 앉아 쉬며 간식을 먹고 있다. 아이들의 등을 감싸는 풀잎들은 안정감 있는 등받이를 연상케 하고 폭신한 흙바닥은 엉덩이를 감싸주듯 묘사되어 있다. 자연과 마음을 일체화 시키려는 작가의 소망대로 대지와 식물들은 모성의 상징(象徴)을 노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각자의 아이들 표정은 간식을 먹는데 온 정신을 몰두하고 있다. 한바탕 멋진 군무(群舞)를 하고 숨을 돌리며 진충(填充)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흔적으로 머리에는 아기공룡 둘리<sup>34)</sup>의 얼굴로 된 장식을 쓰고 있다. 유일하게 머리장식

32) 이찬주, 『돌과 물의 상징성 연구를 통한 무의식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33) 서미경, 『자연이미지를 표현한 도자도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9

34) 『아기공룡 둘리』는 대한민국의 만화가 김수정이 꼬마 공룡을 소재로 하여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연재한 만화이자 이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그 밖의 미디어 믹스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요 만화잡지 보물섬에서 1983년 4월 22일 부터 10년간 연재되었다. 빙하에서 깨어난, 초능력을 지닌 아기 공룡이 한 가정으로 들어와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는

에 들어간 색채는 관념적인 형태로 선행(先行)된다. 색은 선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그것이 눈에 호소하는 힘은 훨씬 설명적이다. 또한, 오랫동안 자연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원형적 근거로 본인의 의도와 의미, 내면의 상태,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주황색’은 피상적이고 불안을 유발시키거나 경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나, 에너지를 일으키고 활발하고 명랑하게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편안함을 주며 갈등을 이완시켜 준다.<sup>35)</sup> 하얀 바탕에 눈에 띄는 ‘주황색’은 여럿이 함께 지키는 규칙과 안무로 지친 어린이들을 모성애로 격려해주고 싶은 작가의 심리를 강하게 묘사한 것이다.

#### [작품14]

배경 천은 아이의 머리맡 베개로 썼던 재료이다.

본인이 드로잉 한 넝쿨식물이미지와는 달리 가공적이고 패턴화 된 식물이미지의 직물은 아이 언저리를 둘러싼 세상, 앞으로 경험해야할 현대사회 등을 의미한다.

화면 전체가 아닌 중앙을 중심으로 제소를 여러 번 중첩(重疊)시키고 인쇄 이미지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지움으로써 흰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금은 그 현실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성의 심경(心境)이다. 가장 사각모서리 면들은 천 자체의 고유 속성을 어느 정도 남기기 위해 전혀 칠하지 않고 천의 짜임과 결이 느껴지도록 붓질한다. 화면의 한가운데 만들어진 흰 공간은 어머니의 정신적 돌봄의 상징적 공간이다.

울타리를 이루는 일련의 넝쿨식물들은 바탕식물이미지와는 달리 색채나 디테일(detail)을 허용하지 않고 선묘(線描)로만 그려져 있다. 염원을 담은 돌탑 같

---

이야기를 그려낸 만화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로 꼽힌다.

<sup>35)</sup> 『색상징-주홍, 주황색의 의미 상징성, 색상징을 이용한 미술치료』, 한국미술교육연구협회, 2014

기도 한 축적된 넝쿨 잎들의 구조는 배경식물이미지에 비해 색도 묘사도 없으나 그보다도 더 무게감 있는 조직력과 구성력으로 이루어져 보인다. 뻣뻣하고 밀도 있게 그려진 울타리는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쉽사리 침범받기를 용인(容認)하지 않는다. 또한, 울타리구조 그릇처럼 아이를 담은 듯 상징적이고 장식적이다. 상단은 막혀져 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보여 지며 이는 모성애적 보호의 제한적 한계의 표상이자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과의 직면을 통해 스스로 자아를 찾아 나가기 바라는 모성심리이다.

작가는 어린이의 표정을 멍 때리는 상(像)으로 그리고 있다. ‘멍 때린다’ 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곳을 응시하고 딴 생각을 한다’ 는 은어(隱語)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아이들의 모습은 작가가 자주 보여주는 표현이다. 어린이들은 곧잘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 멍한 시간을 갖게 되면 과도한 집착이나 불필요한 생각들을 의식 속에서 떨쳐 버릴 수 있다고 한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함이 아니라 정신을 이완시키고 뇌와 마음을 비워 사색(思索)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아이의 모습은 본인을 자꾸 안으로 응시하게 만들고 매혹시켜 영감(靈感)을 준다.

#### [작품15]

아이들의 군상(群像)이다.

바탕 면으로 선택한 천은 아이가 쓰는 이불의 뒷지로 쓰고 남겨진 조각 천이다. 이 천은 보드랍고 나긋하며 무엇이든 말할 수 없는 곁을 갖고 있다. 옅은 연두색폴들과 살구 빛 분홍 꽃들의 무늬 천위에 올려진 유백색의 물감은 거칠고 불규칙하게 붓질되고, 중력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둔다. 몽환적

---

36) 『멍 때리기의 효과』, [blog.naver.com/bdk\\_korea](http://blog.naver.com/bdk_korea), 2014.11.13

인 분위기보다 본인의 손길을 드러내어 더욱 회화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여섯 명의 아이들은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좁게 붙어 서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부모참여수업 때 보여준 작은 연극은 본인에게 꽤 기억이 남는 추억이 되었다. 여러 관중들 앞에서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려는 아이들은 긴장되어 굳어져 있다. 인물의 하단주위는 식물들이 자라 울타리처럼 둘러 둘러(督勵)하고자 한다. 구도는 지극히 간결한 것이지만, 인공적인 단순화나 양식(樣式)화의 흔적은 아니다. 부모가 된 마음과 이상적 자아를 향한 내적 요구는 아이를 둘러싼 자연물로 드러나고 몹시 잘 짜여진 연극무대처럼 안정적인 상황적 요소를 설정한다. 작품 속 인위적이고 연극적인 연출은 이데아를 향한 장치인 것이다.

아이들의 머리에는 사과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살구 빛 분홍색으로 색을 입혀져 있다. ‘분홍색’은 공격적인 감정을 진정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색이다. 여성스럽고 온화한 느낌이기 때문에 격앙될 수 있는 모습을 완화시켜 주는 데 뛰어나다. 또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높이고 만족한 기분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는 관계, 서로 격려해 주는 관계를 맺는데 용이하다.<sup>37)</sup> 본인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하고, 아이들의 의욕과 용기가 솟아나도록 북돋게 하고자 여성(모성)의 상징인 ‘분홍색’으로 채색하였다.

배경의 살구 빛 분홍색 꽃과 아이들 머리에 쓴 사과머리 장식의 부드러운 분홍색은 화면에 감미로움을 주고 기분 좋은 하모니(harmony)를 이룬다. 선묘로만 이루어진 드로잉에서 부분적으로 산뜻한 색을 넣음으로써 더욱 그 의미를 높였다.

---

37) 황정선, 『일 잘하는 그녀의 컬러 스타일북』, 황금부엉이, 2011

## [작품16]

[도판3]의 크로키를 기초로 천위에 드로잉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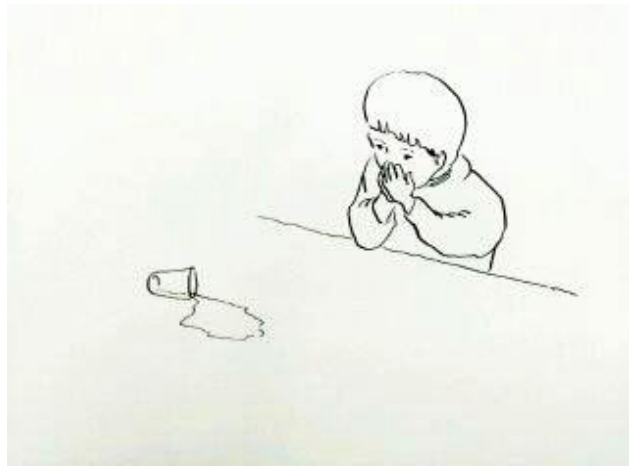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는 턱을 괴고 편안하게 꿈을 꾸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이다. 딸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몽상에 빠진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본인은 딸아이를 통하여 어린이란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여 기억하고 되새기려 노력한 것 같다. 천진한 이 어린이에게도 분명 삶의 무게라는 것이 있으리라. 밤에는 더 이상 어떠한 태도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아이는 상념에 잠긴다.

역시 잔잔한 들꽃과 풀잎들의 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질북은 천은 아이의 간절기 외투로 만들었던 코르덴<sup>38)</sup>이라는 직물이다. 화면 중앙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변이(變移)되며, 드로잉을 하기 위한 토대(土臺)를 만든다. 어두운 직물위의 유백색은 무대 위의 조명과 같이 그라데이션(gradation)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정답고 깊이 있는 부드러운 톤(tone)을 갖추게 해준다. 깊숙하고 안락한 모성의 자궁 안과도 같은 질북은 천은 아이의 감정과 본인에게 내제되어 있는 모성의 리리시즘(lyricism)<sup>39)</sup>을 극대화 시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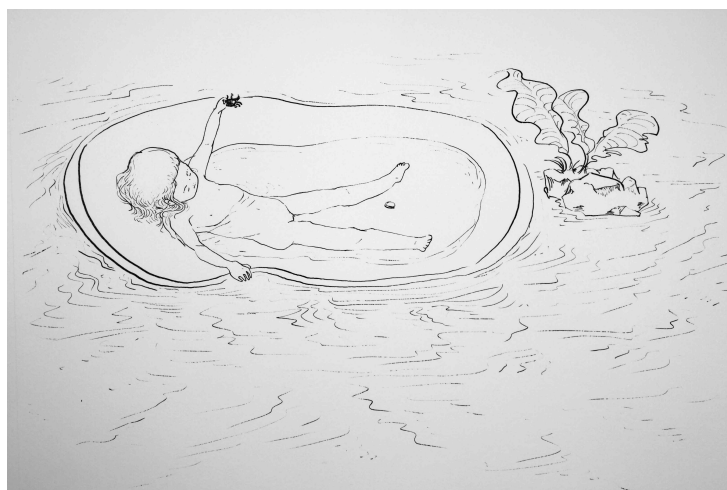
<sup>38)</sup> 코르덴(corded velveteen) : 우단으로 굵거나 가는 꼴이 지게 짠 직물.

<sup>39)</sup> 리리시즘(lyricism) : 예술 작품에 표현된 서정적인 정취. 심정 고백이나 자아가 투영된 표현 등 서정적 기분이나 수법을 추구하는 서정 정신을 말한다.



[작품1] 쏟아진 물 컵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上)

[작품2] 쏟아지고 있는 물 컵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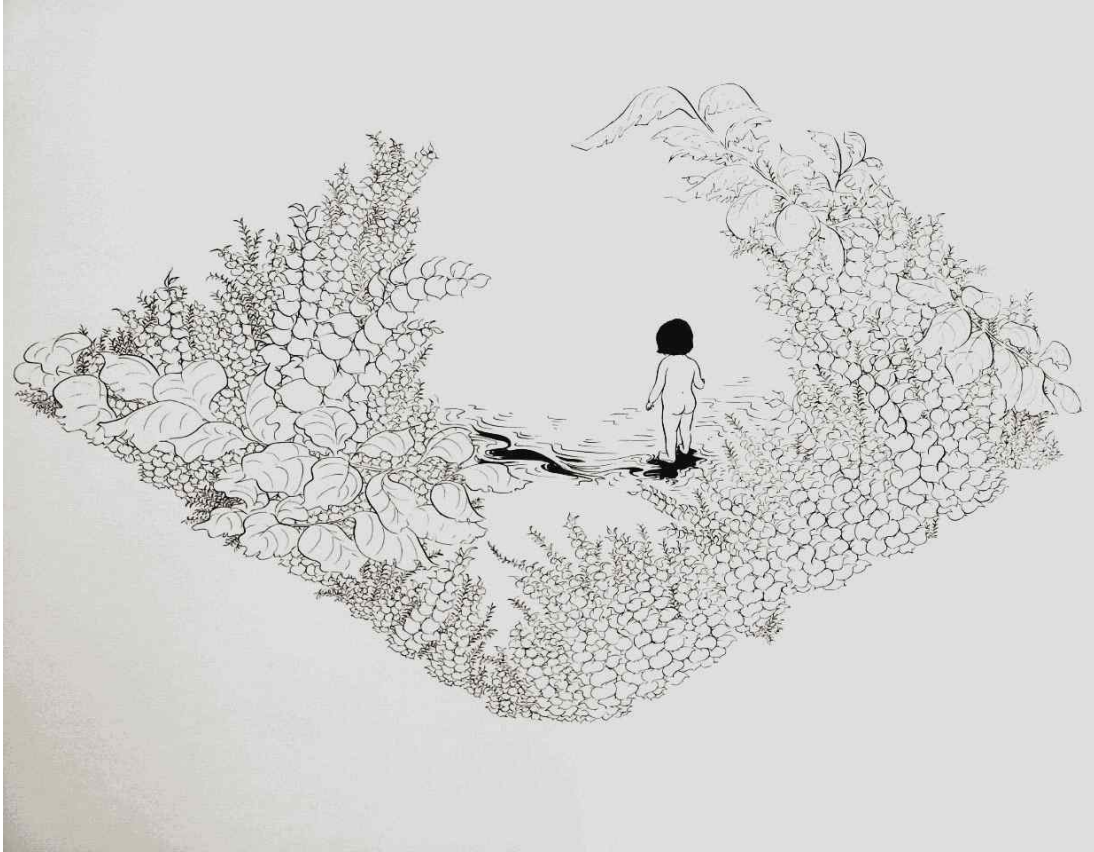


[작품3] 아이와 자연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上)

[작품4] 물속의 아이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下)



[작품5] 울타리 속 아이들 nip and ink on paper 53×45.5cm 2013



[작품6] 어린이의 사유 nip and ink on paper 42×59.4cm 2013



[작품7] 모성애 nip and ink on paper 29×42cm 2013



[작품8] 모녀(母女)들 nip and ink on paper 42×29cm 2013



[작품9] 울타리 속 남매 nip and ink on paper 21×29cm 2013



[작품10] 엄마를 기다리며 nip and ink on paper 29×42cm 2013



[작품11] 어린이 자아 nip and ink on paper 42×29cm 2013



[작품12] 숨은 아이 nip and ink on paper 29×21cm 2013



[작품13] 쉬는 시간 brush pen, gesso on panel 90.9×60.6cm 2013



[작품14] 울타리 속 아이 nip and ink, gesso on printed fabric

53×45.5cm 2013



[작품15] 아이들의 연극 brush pen, milk-white acrylic on printed fabric  
100×80cm 2013



[작품16] 思索 brush pen, milk-white acrylic on printed fabric

34.8×24.2cm 2013

### Ⅲ. 결 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통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모성애를 기반으로 돌봄을 받는 어린이의 세계와 본인의 이상적 어린이 상(像)이 본인의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인간은 모성애의 표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프랑스의 철학자 크리스테바(Julia Cristeva, 1941~)의 말처럼 인간의 성장발달에서 차지하는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크다.<sup>40)</sup> 본인은 일관적이고 변함없는 모성역할의 객체와 주체를 경험하며 자기발견을 다채롭게 표현하게 되었다. 경험에서 비롯된 인지(認知)는 연구자의 회화에서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을 넘어 이상적인 자아를 구현하는 장소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으로 형성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배경과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이다.

연구자는 인류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종이를 바탕재료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이미지를 절대적 희생이 아닌 근본적인 자연으로써 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성의 몸체와 흐르는 사랑의 형태를 비유한 펜촉과 잉크의 사용으로 모성의 궤적(軌跡)을 확인시켜 주었다.

모성을 대지와 넝쿨식물에 비유하여 유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주위를 울타리 화 하였다. ‘물’, ‘돌’, ‘넝쿨식물’ 이미지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무의식적 구현방법을 통해 아이보호를 집착하는 모성의 표현 양상을 돌출(突出)한 정화(淨化)된 세계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근원적 모성애와 본질적 자아를 유추해 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작중 고뇌의 짐을 씻어주는 이상적이고, 온화한 공간을 도모(圖謀)하고자 했다.

---

40)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옮김, 엘피 출판사

습작개념의 드로잉이 아닌 본인의 선묘드로잉과 여백(餘白)은 일러스트와 같은 ‘펜화’라는 데에 한계를 나타냈지만, 후기에는 아이가 실제로 쓰는 천과 물감을 극대화된 모성애의 상상력을 내포한 소재로 도입함으로써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양한 상징표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모성역할을 통하여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어린이 상(像)을 이상적 자아(自我)로 삼으며, 이상적 공간 창출에 대한 연출(演出)적인 매체연구와 조형분석을 하였다. 이는 분명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성의 보살핌 순환(循環)과 아이를 통한 자의식(自意識)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만약 딸아이가 없었다면 어린이란 존재자체가 무의미(無意味)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순수한 어린 자아를 돌이켜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데에 기쁨이나 긍지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본인이 드로잉한 어린이들은 어머니로써 강한 모성애를 갖추고 있지만 본인에게 깊숙이 내재된 지금의 유약한 현주소를 투영(投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살핌을 치밀하게 주는 모성경험을 통하여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도 타인과 자신, 나아가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대상(對象)을 끊임없이 본인만의 관점(觀點)을 통하여 깊이 있는 무의식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색(摸索)해 나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옮김, 엘피 출판사
- 로빈 조지 콜링우드(Robin George Collingwood), 『자연이라는 개념』, 유원기 옮김, 이제이북스
- 바바라 클벳 저, 『어린이의 정원』, 프뢰벨 교육연구소
- 사라러덕, 『모성적 사유 :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이해정 옮김
- 세라 블래퍼 허디, 『어머니의 탄생 :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2010, 황희선 옮김, 사이언스북스
- 셀리 테일러, 『너와 나를 묶어주는 힘-보살핌』,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 스티븐 D.에드워즈 지음, 『돌봄과 치유의 철학』, 공병혜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서울 : 나남출판, 1999
- 안인희, 『루소의 자연교육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09.10.
- 유안진, 김연진,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동문사, 1993
- 『종이의 기원-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2002.6.20.
- 정옥분, 정순화, 『부모교육-부모역할의 이해』, 양서원, 2004
- J.H.PESTABZZI, 『페스탈로치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음』, 양서원출판사, 1999.11.20
- 최상욱 지음, 『하이데거와 여성적 진리』, 철학과 현실사, 2006
- 프랑수아즈 돌토, 『어린이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표원경 옮김, 숲
- Friedrich Frobel, 『어머니의 노래와 애무의 노래』, 서석남 옮김, 서원
- Crain. W.C.,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중앙적성출판사, 1987

W.휴 미실다인, 『몸에 밴 어린시절』, 이석규, 이종범 옮김, 가톨릭 출판사

류미라, <페미니즘 미술에 나타난 표현 주제 연구 : 루이즈 부르주아, 메리 켈리, 바바라 크루거 작품에 나타난 모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윤재홍, <'울타리'의 교육인간학적 의미 연구 = (A) study of the meanings of 'Ultari' in terms of pedagogical anthropology>,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혜영, <모성(母性)에 관한 형태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l expression for maternity : centering around my work>,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하정민, 夕サイ, オサ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문학 연구 : 물과 모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azai Osamu's literature : focusing on water and maternity>,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박사학위논문, 2007

한재련, <모성 체험의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ABSTRACT

## A Study on Line Drawing of Ideal Ego Expression through Maternal Role

- Focusing on my own artworks -

Kim, sang hee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s displayed in 'A Safe Place' Exhibition in February 2014, this paper included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tent and formative aspects.

Unlike animals, human beings can not live alone and must live together while caring for one another. As Patricia Benner said, "Caring is the basic method present in the world", mankind could survive and carry on their family line because of the instinct of compassion trying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help them. In particular, maternal tolerance and caring of maternity are human's primitive properties because the former can realize the relationship of co-existence toward peace and the latter can practice mercy.

Through the personal experiences of having been cared for by mother for

25 years as a human being and had a family and giving birth to and brought up a baby for 7 years as a woman, the author was to show the positive role of caring. Therefore, the author's work expressed the psychology of childcare suitable enough for the present age in figurative language with maternal viewpoint and behavior.

Like the theme of instinctive motherly love easy to be overlooked as it is the most natural process of human life, paper and cloth which are base paper of traditional painting that mankind has used for the longest time as the expression of art are used and the characteristics are studied and analyzed.

In the work development process, the author uses a pen point and ink or brush pen material. The author is to study the research topic star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ceiving care and the author, the mother giving care and examine how the maternal body embracing the love for the child and care towards child are visualized while exploring the properties of materials.

However, the researcher is faced with limitations of time and place in capturing the child who is continually moving and exploring. This became an opportunity to proceed with drawing from the perspective of lively and realistic oriental painting. From a point of view of today when there are many risk factors for safety unlike the past, the author could provide devices called vine plants and oriental painting margin in order to embody care and protection given to the chi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 who is the mother.

The author also tried to find the essence of pure ego while recalling the

author who was a child in the past by using quilt and fabrics of clothes actually used for the child in the house.

Therefore, this paper could reflect on the self who had the world of a pure child through this study and tried to express the protection called strong motherhood that does not want to allow any risk to her child as a fence. The author is to make this as the opportunity to find a new expression method to be progressed in order to emphasize the theme more effectively by reviewing the author's work thoroughly.